

5박 6일간의 짧은 하가다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처음 출발할때는 일주일간 휴대폰 없이 어떻게 사나걱정반 설렘반 이었는데 막상 다녀와보니까 좀 더 있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가다를 하면서 여태까지와는 사뭇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첫째날은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주일간 지내는 것이다 보니까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첫째날을 지냈는데,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성령 집회를 통해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다음날부터는 저녁시간만 기다려졌습니다. 첫째날에는 저스틴 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성령사역을 보고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울며 기도하는걸 보고 피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 끝나고 따로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오라고 하셔서 마음먹고 한번 가봤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드디어 제 차례가 와서 받았지만 반응이 없어서 좀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둘째날과 넷째날에도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다음날만 기다려졌습니다. 하가다 활동을 통하여 캠프생들과는 물론이고 HCS(광주 기독교 사관 학교) 학생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첫째날이 지나가고 둘째날부터는 지루하다는 생각 대신 즐겁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정은 아침체조-조식-하가다 강의-반별 하가다(오전)-점심-반별 하가다(오후)-저녁-성령 집회 이 일정이었었는데, 처음 봤을때는 정말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다 보내고 나니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꼈습니다. 둘째날에는 권오익 목사님이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성령사역을 하시는 분이라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 되어서 목사님이 먼저 가시고 저는 기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셋째날에 오셨던 김성은목사님은 찬양을 정말 신나게 인도하셔서 나도 사람들과 같이 신나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날 드디어 저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효과가 없어서 누워서 기도나 하자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속이 답답해지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색다른 기분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넷째날도 지나고 다섯째날은 이강주 담임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이강주 목사님의 설교는 하가다 캠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교였습니다. 다섯째날도 지나가고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시작할 땐 힘들었지만 마지막에는 강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아쉽고 좋은 인연들도 만나서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